

[디앤씨미디어(263720), '웹툰' 콘텐츠 글로벌 진출 가속화]

디앤씨미디어 '버림 받은 황비', 중국·일본·미국·인도네시아 동시 진출

- ▶ '황제의 외동딸', '이세계의 황비' 이어 3번째 4개국 동시 출시 작품
- ▶ 기존 해외 진출 웹툰의 성공 힘입어 다수 추가 작품의 글로벌 계약 협의 중

<2018-09-03> 디앤씨미디어가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이며 '웹툰' 한류 열풍을 이끌고 있다.

웹소설·웹툰 Contents Provider 디앤씨미디어(대표이사 신현호)는 웹툰 '버림 받은 황비'가 중국·일본·미국·인도네시아 웹툰 시장에 동시 진출했다고 3일 밝혔다. '버림 받은 황비'는 지난 7월 말 인도네시아 네오바자르(Neobazar)를 통해 해외 시장 첫 연재를 시작했고, 8월 8일 미국 태피툰(Tappytoon), 8월 24일 중국 텐센트에 이어 9월 1일 픽코마를 통해 일본 시장에 첫 선을 보이며 4개국 진출을 완료했다.

회사측은 "4개국 동시 진출은 '황제의 외동딸', '이세계의 황비'에 이어 세 번째 작품"이라며 "인도네시아 웹툰 플랫폼 기업 '네오바자르'에서는 7월 31일 연재를 시작해 현재 웹툰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진출한 미국 태피툰에서도 현재 신작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형 출판사와 출판 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이어서 작품 흥행에 대한 확신이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디앤씨미디어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황제의 외동딸'은 중국에서 7월 말 기준 누적 37억 부를 기록했고, 일본 코미코 2017년 신작 1위에 랭크되는 등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일본 출판만화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 현재 4권까지 출간이 완료된 상황이다. 미국 태피툰과 인도네시아 네오바자르에서도 '황제의 외동딸'과 '이세계의 황비가' 각각 베스트셀러 2, 3위로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 등 기존 진출 작품들 모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공작저로 가야했던 사정'이 성공적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일본 연재를 앞두고 있고 '카이로', '블루홀 메리지', '아델라이드', '용이 비를 내리는 나라', '악녀의 정의',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여러 인기 작품들의 해외 진출이 협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디앤씨미디어 신현호 대표이사는 "국내에서 작품성, 흥행성이 검증된 다수의 웹툰 콘텐츠가 해외 독자들에게도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웹툰 콘텐츠를 통해 중국과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등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웹툰 시장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웹툰의 한류 열풍을 이끌고 웹툰 시장을 대표하는 '글로벌 콘텐츠 프로바이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자신감을 전했다.

[참고 이미지]



☐ 자료문의 : 디앤씨미디어 김현호 이사 (02-6124-6391)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10-3686-2279) / IR큐더스 윤지희 선임 (010-7139-5888)